동국대 20대 총장 후보 윤성이 · 윤재웅 · 임중연 '압축'

총추위 회의서 선출… 1월 5일 이사회서 총장 선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20대 총장 후보로 윤성이 現 동국대 총장,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최종 선출돼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혜일)는 구랍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최종 후보 3인을 선출했다.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윤성이 現 총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최종 선출됐다. 이들 후보들은 득표수와는 상관없이 무순으로 법인 이사회에 추천됐다. 3인의 후보 추천을 받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월 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20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됨에 따라 후보들이 내놓은 학교 발전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성이 "불교산업진흥원 설치 등 추진"

재임에 도전한 윤성이 現 총장은 '글로벌라이즈 동국(Globalize Dongguk)'을 슬로건으로 동국대를 '공헌'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성장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동국대의 불교문화콘텐츠 프로그램수를 2023년 10개에서 개교 120주년을 맞는 2026년까지 108개로 늘리고 불교국책사업 수주액을 108억 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대학평가 100위 이내 학과를 2026년까지 5개로 확대하고 국내대학평가 순위를 5위로 상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윤 총장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하는 교육사업 확대 △건학이념 구현의 외연을 국내에서 세계로 확장 △불교산업진흥원 설치 △지역사찰과의 협업 통한 미래불교 초석 마련 △BMC 특성화 전력 및 승단 복지사업 연계 등을 공약했다.

윤 총장은 "'불교중흥 동국발전'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하는 건학이념 구현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불교정신 기반 융합교육과정 개발, 불교 명상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산업진흥원 설치를 통해 불교문화유산 공헌활동을 진작하고 BMC


윤성이


윤재웅


임중연

캠퍼스의 의 · 약학 특성화 전략과 종단 승려복지사업을 연계해 종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종학불사 12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종단 120개 본말사 교류 네트워크 연계된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Need-Base 전원 장학프로젝트와 취 · 창 · 학120프로젝트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취업하며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윤재웅 "종립대학 건학이념 교육 강화"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을 발전 목표로 삼았다.

윤 학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학장은 "불교교학과 현대교육학을 결합한 '불교교육학' 교육이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려 한다"면서 "남산 걷기 명상(行禪) 프로그램과 합장 · 공양기도 등을 일상화해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BMC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고 현 테니스장 부지에 기숙사 신축과 혜화문 일대 로터스관 착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구조혁신과 인수합병을 통해 학교 재정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확장하고,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학장은 "동국대는 붓다의 지상명령으로 설립된 학교로, 붓다의 실천적 삶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실천도량이다. 이것이 동국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의 핵심"이라면서 "불교교육학의 체계를 세우고, 현재 · 미래교육과 어떻게 상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동국교육의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화된 교육 · 경영이론을 뒤따라가면 구성원들은 기계부품처럼 마모된다. 동국대는 기능주의적 프레임에 벗어나 '마음의 향상'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중연 "아시아 불교종립대학 허브로"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한국 대학, 글로벌 동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국문화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평가 순위를 5위로 끌어올리고, 4년간 모금액을 1000억 유치하며, 숙원사업인 로터스관을 착공하겠다는 핵심목표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아시아 불교 종립대학 허브 구축 △국제화 및 ESG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기업 맞춤형 국내 및 해외 취업지원시스템 확대 △창업모태펀드 확충을 통한 투자 지원 인트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아시아 불교종립대학 연합을 구축하고 불교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를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이끌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네르바 스쿨의 장점을 반영한 교환학생 제도를 개발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 단결과 외부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모금액 1000억 원 달성과 로터스관 착공도 약속했다. 임 교수는 "매주 1개 기업과 3명의 기부자를 연결하고 각 학과 · 연구소 단위의 기업과 MOU를 지원하며 해외 동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로터스관을 우선 착공하고 글로벌기숙사 확보 등을 통해 선순환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

문화재청 구랍 27일 지정 공고
백제代 '불교공예 정수'로 평가
고대 사리장엄 연구 절대 사료


국보로 승격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백제시대 불교공예의 정수로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등 고려 · 조선시대 전적,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유물이다. 출토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6점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는데,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계기가 됐다.

사리장엄구 중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이다.

사리장엄구 중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달솔(達率) 목근(目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달솔이라는 벼슬(2품)을 한 목근이라는 인물이 시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을 바탕으로 시주자의 신분이 백제 상류층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함께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 확인돼 희귀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백제 왕실에서 발원해 조성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돼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서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며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는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동안 만들어진 불교경전이다. 조선 성종 대에 조성된 〈불조역대통재〉 22권 14책도 보물로 지정됐다. 신성민 기자

대불청 회장 장정화 · 대불련 회장 유정현

장정화 "지구 지회 함께 성장"
유정현 "젊은 불자 양성 보탬"


장정화


유정현

장정화 제31대 대한불교청년회장이 구랍17~1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76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회장에 재선출됐다. 총 투표수 86표 가운데 78표를 받았다.

새로 시작하는 2년의 임기 동안 대불청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장정화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소통에 나서 지구, 지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층 포교사업 외에 재정자립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우들과 함께 대불청 발전에 최선을 다했기에 연임됐다고 생각한다"며 "100년이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정화 회장은 경북예천 출신으로 대불청 경북지구 예천지회 부회장, 경북지구 사무처장, 중앙부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제61년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3학년 유정현 씨가 당선됐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구랍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회장을 선출했다.

유정현 회장은 동대부여고 재학 중 불교동아리 파라미타 활동을 했으며 2019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부에 입학했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 '불교유적답사회' 기획부장을 역임했고 청년 대학생 불자 조직 리더 워크숍 청년대학생전법단 역사문화순례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유정현 회장은 "젊은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1면에 이어〉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지난 3년여 간을 준비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어서 불교 안팎의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순례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

상월 인도순례 2월 9일 시작
43일 대장정…불교 역량 결집
문화 교류행사, 세미나 예정

가지로 길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 수행을 펼친다.

순례는 인도 현지에서의 이동 후 2월 11일 부처님이 성도 후 처음 설법한 사르나트(녹야원)에서 입재식이 진행된다. 이후 2월 23일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 2월 25일 최초의 결집장소인 칠엽굴과 영축산이 있는 라즈기리, 2월 26일 라즈기리의 나란다대학, 3월 1일 부처님이 여러 안거를 보낸 가장 사랑하던 도시 바이샬리,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3월 20일 부처님 가르침이 남아있는 기원정사의 쉬라바스티 등을 거친다.

하루 행선 거리는 24~30km로 현지 42박 중 텐트에서 29박, 별도 숙소에서 12박을 머물게 된다. 3일차에는 경전에 나오는 항하사 설화를 바탕으로 갠지스강에서 약 4km를 배로 이동하는 과정과 녹야원, 마하보디대탑, 죽림정사, 쿠시나가르 등에서는 대규모 법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 행선은 새벽 3시에 출발하여 묵언 속에서 진행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등 한국불교 역량이 집결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동국대는 2월 25일 인도 라지기르에서 인도 날란다대학과 함께 '순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에는 6개국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순례 의미 등을 되짚을 예정이며, 대회 이후에는 동국대와 날란다대학의 MOU도 체결된다. 조계종은 순례 회향에 맞춰 직접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지를 찾을 예정으로, 연등회 전시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시연 · 만찬 등 다양한 교류행사도 추진된다.

25돌 종지협 "평화 · 공생 위한 재도약"

구랍 21일, 한국의집서 기념식
자승 · 원행 스님 공로패 수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종교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이하 종지협)는 구랍 21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생, 행복을 위한 재도약을 위해 종교계가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 진우 스님은 그동안의 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각각의 종교가 이념체계와 문화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종교가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같다"면서 "정의와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 각 종교계는 종교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가르치고 공동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물질중심의 가치관,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가르침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종교간 유대와 화합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종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지협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이어졌다. 10,11,12대 세 차례 대표의장으로 단체 발전에 초석을 놓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14,15대 대표의장 원행 스님, 13대 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자승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원행 스님을 대신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대우 스님이 대리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의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에 남상일 · 박희진

12월 23일, 본부서 위촉식
"소욕지족 삶 최선" 다짐

국악인 남상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가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사진〉

불교환경연대는 구랍 23일 본부 그린담마홀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남상일 씨와 박희진씨는 신심 깊은 불자예술인으로서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불교환경연대를 알리고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살림 가르침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남상일 씨는 "평소 공연을 다니며 일회용품이 함부로 쓰이는 게 걱정됐다"면서 "불자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희진씨도 "소욕지족하며 홍보대사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악인 남상일 씨는 국악대세 아이콘으로 불리우며 대중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국악인이다. 문화예술, 방송, 교육 등의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들에게 열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KBS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가수 박희진 씨는 BBS 불교방송 전 영신의 아침저널 고정패널을 맡고 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평택 미군기지에서 진행했던 봉축 법회식 날 찬불가 무대를 꾸며 참석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임은호 기자

